

- 주요 뉴스: 미국 8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9월 큰 폭 금리인하 기대 감소
 - 미국 대선 토론, 양 후보는 경제 등 주요 쟁점 공방. 유권자 평가는 해리스 우세
 - 영국 7월 GDP, 2개월 연속 전월비 보합. 향후에는 성장세 지속될 전망
 - 일본은행 나카가와 위원, 실질금리는 매우 낮은 편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해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8월 소비자물가 결과, 반도체 부문 실적 호조 지속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저가매수 유입, 반도체 관련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8월 소비자물가 관련 상이한 평가 등으로 강보합
 - 환율: 달러화지수는 9월 큰 폭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으로 상승
유로화 가치는 0.1% 하락, 엔화 가치는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8월 근원 소비자물가의 예상치 상회 등이 반영
독일은 영국 7월 GDP의 예상치 하회 등에 따른 국채가격 상승 등으로 2bp 하락
- ※ 뉴욕 1M NDF 종가 1337.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39.9원, 0.12% 하락). 한국 CDS 강보합

		9/11일	9/10일	전일대비			9/11일	9/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554.1	5,495.5	+1.07%	국채 금리 10y	미국	3.65%	3.64%	+1bp
	유럽	508.02	507.95	+0.01%		독일	2.11%	2.13%	-2bp
	중국	2,721.8	2,744.2	-0.82%		영국	3.76%	3.82%	-6bp
	일본	35,620	36,159	-1.49%	CDS 5y	한국	33bp	33bp	+0bp
	한국	2,513.4	2,523.4	-0.40%		중국	62bp	61bp	+1bp
환율	달러지수	101.73	101.63	+0.10%	위험 지표	EMBI+	-	420	-
	유로화	1.1012	1.1020	-0.07%		VIX	17.69	19.08	-7.29%
	엔화	142.36	142.44	+0.06%		WTI유	67.31	65.75	+2.37%
	위안화	7.1194	7.1208	+0.02%	원자재	구리	408.3	404.1	+1.05%
	원화	1,341.5	1,344.2	+0.20%		금	2,511.8	2,516.7	-0.2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9월 큰 폭 금리인하 기대 감소**
 - 8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월간 상승률은 0.2%로 전월(0.2%) 및 예상치(0.2%) 부합했고, 연간 상승률은 2.5%로 전월(2.9%) 및 예상치(2.6%) 하회. 근원 CPI의 경우 월간 상승률은 0.3%로 전월(0.2%) 및 예상치(0.2%) 상회했고, 연간 상승률은 3.2%로 전월(3.2%) 및 예상치(3.2%)와 같은 수준
 - 항목별로는 전월비 기준으로 중고차(-1.0%), 에너지(-0.8%) 부문이 큰 폭 하락한 반면, 주거비(0.5%), 운송 서비스(0.9%) 부문은 상승. 아울러 최근 3개월의 CPI 상승률(연율)은 2.1%로 7월(1.6%) 대비 높은 수준
 - 이번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9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가 예상되나, 근원 CPI의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 큰 폭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 CME의 FedWatch Tool 역시 9월 FOMC에서의 0.50%p 인하 가능성은 15%에 불과하다고 제시
 - 8월 근원 CPI의 상승 압력이 대체로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폭 금리인하 가능성이 감소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 연착륙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Evercore). 급격한 경기하강 혹은 고용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준은 0.25%p 금리인하를 통한 점진적 통화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IAA)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대선 토론, 양 후보는 경제 등 주요 쟁점 공방. 시청자 평가는 해리스 우세**
 -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는 첫 TV 토론을 통해 경제·이민자 등 주요 쟁점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 피력. 트럼프 후보는 최근의 고물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 때문이며, 불법 이민자로 인한 많은 문제들 또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 한편 가자지구 및 라우 전쟁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 해리스 후보는 중산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며, 낙태권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겠다고 강조.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는 트럼프 후보가 반대했던 국경강화법안 부결의 영향도 있다고 지적. TV토론 이후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더 잘했다는 의견이 63%로 트럼프 후보(37%)를 앞선 것으로 확인

■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금리, `23년 2월 이후 최저. 리파이낸싱 신청 증가로 연결

-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9/6일 기준 30년 만기 모기지금리는 6.29%로 전주비 14bp 하락. 이는 작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모기지금리 하락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택구매 혹은 리파이낸싱을 위한 모기지 신청이 증가

■ EU 상공회의소, 높은 진입장벽과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중국 투자에 어려움

-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는 역내 기업들이 높은 진입장벽과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중국 내 투자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 아울러 중국 당국은 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

■ 영국 7월 GDP, 2개월 연속 전월비 보합. 향후에는 성장세 지속될 전망

- 7월 GDP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고,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1.2% 증가. 이는 예상치(각각 0.2%, 1.4%)를 하회한 것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저조. 경제는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초와 비교한다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낼 전망

■ 일본은행 나카가와 위원, 실질금리는 매우 낮은 편.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해석

-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궤도에 따라 움직인다면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수정될 것이라고 발언. 또한 현재 실질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첨언. 이러한 언급은 모두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이에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상승

■ 호주 중앙은행,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은 점차 개선될 전망

- 사라 헨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공급 부족 상황에 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 실업을 역시 이를 반영하여 작년에 3.5%로 저점을 지난 후 최근에는 4.2%까지 상승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1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생산자물가 및 9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ECB 통화정책회의
- 영란은행 브리든 부총재 발언, 스페인 8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수익률곡선 정상화, 경기침체 예측에 효과적이나 예외도 존재 - WSI

(A Recession Signal Is Flashing Red. Or Is It?)

- 최근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단기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수익률곡선이 정상화.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경기침체 혹은 연착륙 신호로 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 역사적으로 큰 폭의 금리인하는 대부분 경기침체와 연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 예측 관련하여 정확도가 높은 편
-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 일례로 금리인하가 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 아울러 최근의 경우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작은 편.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경기침체 여부 판단 시 수익률곡선 정상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부적절

■ 연준의 통화정책, 다수의 노동시장 위험 신호 고려 시 강력한 대응 필요 - Financial Times

(Is the US jobs market blue or gold?)

- 미국의 8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수는 14.2만명으로 예상치(16.5만)를 소폭 하회하며, 다양한 해석을 유도.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0.50%p 금리인하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 첫째, 고용 둔화는 경기침체 진입의 선행지표. 둘째, '23년부터 비농업 고용 증가는 생산성이 낮은 정부 및 돌봄부문이 주도
- 셋째, 고임금의 정규직은 줄어들고 저임금의 파트타임 일자리는 증가. 넷째, 노동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취업률 하락은 우려스러운 상황. 다섯째, 민간부문 근로자의 50%를 구성하는 중소기업의 채용 계획이 빠르게 감소

■ 미국 기업의 차입 비용, 금리인하 여건에서도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 - The Economist

(Strangely, America's companies will soon face higher interest rates)

- 연준의 금리인하가 확실시되지만, 다수의 기업들은 더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할 전망. 이는 금리 조정이 실제 차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 직전의 통화긴축 시기에 기업들은 보유 현금에 여유가 있고, 낮은 금리가 적용된 장기 대출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에 금리인상 영향이 제한적
- 다만 최근 저금리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27년까지 2.5조 달러 이상의 기업 대출에 대한 재융자가 필요.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재융자가 시행된다면 약 6%의 고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 이에 기업들은 금리인하 시기에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할 전망

■ ECB의 통화정책,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제한적 - Financial Times

(The ECB has no room to cut rates)

- 9월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 결정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필요. 그 이유는 각 중앙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 연준의 경우 연방기금금리가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인하가 적절
- 반면 ECB는 이미 7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수신금리가 3.75%로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에 비해 1.5%p 낮은 상황. 아울러 유로존 물가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이 내재
-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경우, ECB는 적정 수준의 제약적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미국 국채가격, 추세적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당분간 상승세 지속 예상 - 블룸버그

(Keeping the Bond Market's Hopes and Dreams Alive)

■ 미국의 금리인하, 실제 소비자 부담 완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블룸버그

(Rate Cuts Won't Quickly Ease Strain on Consumers)

■ 중국 부동산 위기, 미흡한 미분양 주택 매입 대책으로 단기간 내 해결은 기대안 - 블룸버그

(China's Unworkable Housing Rescue Math Is Prolonging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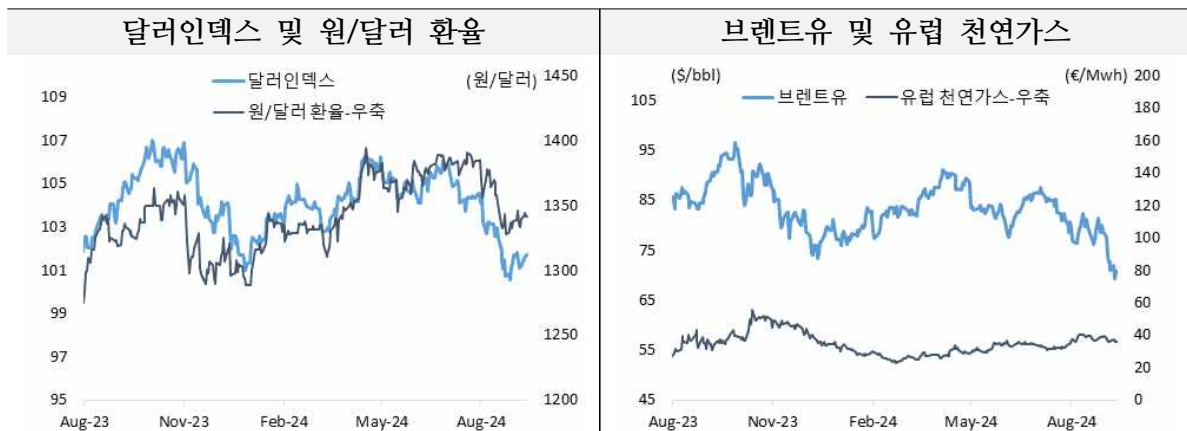
■ 유가 급락의 해석, 경기침체 전조 혹은 물가하락 기여 등 다양한 의견 혼재 - 블룸버그

(Is the Oil Price Slide a Red Flag or a Small Mer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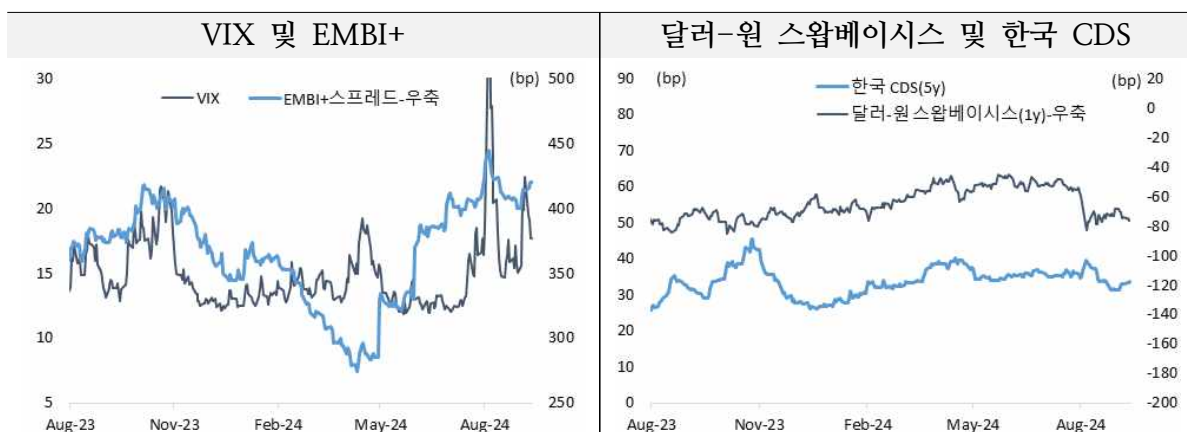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